

# 강기정 시장 “비수도권 예타 폐지…5·18 헌법 전문 수록”

시도지사협 임원단 간담회에서  
새정부 출범 지방 현안 논의  
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제언

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 
위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

당성 제도 전면 폐지와 5·18 정신 헌법  
전문 수록 개헌 등을 강력 요청했다.  
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  
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‘대한민  
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’에  
참석해 “지방분권·균형발전이 새 정부  
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  
요하다”며 이같이 주장했다.  
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올해 민선 지

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·재정  
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  
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”며  
“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
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  
했다.  
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 
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 
(회장), 박완수 경남지사(부회장), 최

민호 세종시장(부회장), 유민봉 사무총  
장 등 5명이 참석했다.  
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시  
도지사협의회 역할과 제21대 대통령  
선거 지방분권·균형발전 관련 공약, 민  
선 지방자치 30주년 시·도 정책 종합박  
람회 개최, 한중지사성장회의·한일지  
사회의 개최 등 현안이 논의됐다.  
임원단은 지방분권·균형발전이 새 정

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이  
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.  
특히 강 시장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 
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와 수도  
권 소재 정부기관·국책기관·공공기관  
의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주장했다.  
강 시장은 또 “이재명, 김문수, 이준  
석 후보 모두 5·18정신 헌법전문 수록  
을 위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거나 분명한

찬성 의사를 표명했다”며 내년 지방선  
거에서 5·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  
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.  
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새롭게 들  
어설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
없이 바로 출범하는 만큼 중앙-지방정  
부 간 협력 방안을 시·도지사의 공동된  
의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.  
윤승한 기자

# 김영록 지사 “재생에너지가 미래…태양광·풍력 확대”

저렴·안정적 에너지원 강조  
대선투표·새정부 대책 당부  
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격려

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“태양광과  
풍력이 갈수록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  
에너지원으로 자리잡는 등 재생에너지가

이젠 미래다”며 “이같은 재생에너지가  
더 확대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 
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 
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“경제협력개  
발기구(OECD)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  
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다”며 이  
같이 밝혔다.  
실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 
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은  
35.4%로 최하위인 우리나라

(10.5%)를 훨씬 웃돌고 있다. 국가별  
로 유럽연합(EU) 46.9%, 덴마크  
88.4%, 포르투갈 87.5%, 독일 62.7%,  
미국 22.7%, 일본 22.0%, 중국 39.6%  
등이다.  
김 지사는 “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좋  
다는 것은 아니다”면서 “발전 비용면  
에서도 2010년에 비해 2023년 태양광은  
90% 하락해 한전의 전기단가 이하로  
떨어졌고, 해상풍력도 63% 하락했다.

앞으로도 발전단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  
므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계속 확대해  
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  
21대 대선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 
강조했다.  
김 지사는 “막연하게 참여해달라고  
할 것이 아니라, 소상공인이 서로 풀었  
이 해 가게를 봐주거나 다른 사람이 봐  
줄 수 있도록 하고, 거동이 불편한 분은  
옆에서 도와주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지

않은 선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 
실사구시적 참여 권장 활동에 나서야 한  
다”고 말했다.  
선거 이후 역할도 당부했다. 김 지사  
는 “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현안이 어  
떻게 전개될 것인지 면밀하게 사전에 분  
석, 그 변화를 잘 찾아내 분야별로 대책  
을 마련하라”고 지시했다.  
김 지사는 고흥 우주발사체 시험인프  
라 구축,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선

정, 지역활력타운 공모 2곳 선정, 기후  
위기대응 등 국가연구개발공모 140억  
확보,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  
속 최우수 등 도정 성과를 열거한 뒤  
“공약 이행률이 타 시·도 평균보다  
12.38%p 높은 64%를 기록한 것은 굉장  
히 높은 것이다”며 “이는 모든 실국  
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으로, 앞으로도  
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자”고  
격려했다.  
정근산 기자

## 광주시, 공직 부패신고 한곳서 원클릭 접수

### 통합시스템 6월부터 운영

광주시가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근절  
하고 시민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
통합 신고시스템 ‘부패 알릴레오’를 구

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.  
2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민들이  
신고를 원할 경우 갑질, 부패, 비리, 소  
극행정 등 부패행위 유형에 따라 부조  
리신고센터, 소극행정신고센터, 예산낭

비신고센터, 채용비리신고센터 등 여러  
신고사이트를 찾아 접속해야 했다.  
‘부패 알릴레오’는 이 같은 문제를 해  
소하기 위해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 
통합시스템이다. 시민이 신고유형을 선  
택하면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신고시스템  
으로 즉시 연결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 
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. 윤승한 기자



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장흥군청에서 열린 ‘전남시장·군수협의회 임시총회’에 참석, 시장·군수들과 투표참여 독려 퍼포  
먼스를 하고 있다. 전남도 제공

## 전남도·시장군수협 “적극적 대선 투표를”

### 공동담화 “압도적 참여” 호소 새 정부 지역 8대 과제 제시

전남도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27  
일 장흥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역  
발전과 도민 행복을 견인할 핵심 과제  
를 공유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대선  
투표 참여를 호소했다.  
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  
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남의 미래를 위  
한 8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.  
8대 과제는 △본소득 실현 △재생에

너지 선도 △솔라시도 AI(인공지능)슈  
퍼클러스터 허브 본격 추진 △농수축산  
업의 AI·스마트화 △석유화학·철강산  
업 위기 대응 △우주 발사체산업 육성  
△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 △미래  
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이다.  
또 6월부터 재개되는 정책비전투어,  
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도와 시·군 간  
인사 교류, 부단체장 임기 연장 등 도와  
시·군이 더 가까이 협력할 구체적 방안  
을 발표했다.  
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“21대  
대선은 지역 미래를 결정하고 민주주의

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선거로 높은  
투표율이 뒷받침돼야 한다”며 “투표를  
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미  
래를 지켜내도록 뜻과 마음을 모아줄  
것”을 요청했다.  
김 지사와 시장·군수들은 이어 공동  
담화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자발적 투  
표 참여를 호소했다. 공동담화문에선  
직장인, 소상공인, 청년, 노약자 등 각  
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하며 직장 내 투  
표 분위기 조성, 근무시간 조정, 상호가  
게 돌봄, 이웃 동행 투표 등 실질적 참여  
방안을 제시했다.  
정근산 기자

## 홍콩·대만 ‘코로나19’ 확산…“65세 이상 예방접종”

### 전남도 “내달까지 무료”

전남도가 최근 홍콩과 대만 등 인근  
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수  
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 
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요청했다.  
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 
11일부터 시작된 2024-2025 절기 코로  
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 
어르신,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,  
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다.  
미접종자는 내달 말까지 접종이 가능  
하다. 방문 전 보건소를 통해 접종가능  
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.  
전남지역 예방접종률은 지난 20일 현  
재 55.3%(전국 평균 47.4%)로 전국에

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2명 중  
1명이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.  
방역당국은 예년 발생 양상을 고려했  
을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 
없다고 보고 있다.  
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 
현재 사용 중인 백신에 유효한 면역 반  
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 
인됐다.  
예방접종은 백신접종 후 면역이 충분  
히 형성되는 기간(4주)을 고려해 가급  
적 빠른 시일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.  
전남도는 최근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  
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 
지역 환자 발생 추이도 주시하고 있다.  
코로나19 발생 감시는 2023년 8월 4

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도내 9개, 전  
국 221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  
로 운영 중에 있으며, 전남에선 주차별  
0~3명 발생을 반복하며 안정세를 유지  
하고 있다.  
전남도는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 
늘고 도내 표본감시 결과 10명 이상의 확  
진자가 발생하면 병원급 112곳을 추가해  
감시 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.  
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 
“코로나19로 인한 중증·사망 예방을 위  
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우선”이라며 “특  
히 감염 취약시설 면회 시 마스크를 차  
용하고 기침 예절, 손 씻기, 정기적 환기  
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”고 말  
했다.  
정근산 기자

BALLISTIC R&D 연구소를 중심으로 골프 클럽, 기어  
역학적 매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 
골퍼를 위한 최상의 클럽을 선보였으며  
이 특별한 결과물이 바로 BALLISTIC입니다.

**발리스틱골프**  
**OPEN**

클럽 · 어퍼클 · 악세사리

**발리스틱골프 광주점**  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1F  
062 · 716 · 3040

광주점  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1F  
062-716-3040